

1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(잘못된 믿음)는 (확대 적용되어) 일반화된 힘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, 보완적인 초자연적 그릇된 믿음들에 의해 강화된다.

2 이런 신화는 Indiana Jones and the Temple of Doom과 같은 영화와 이른바 오래전 죽은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저주와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들에 나타난다.

3 투탕카멘의 이야기는 저주 신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의 전형이다.

4 1922년 그 무덤이 발굴되었을 때, 묘실을 여는데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었다.

5 지나치게 열성적인 한 기자가 그 지연이 그 무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주를 내리는 '고대이집트 비문'의 발견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기사를 썼다.

6 5개월 후 그 탐사대의 리더 중 한 명인 Lord Carnarvon이 갑자기 죽었고,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게 되었다.

7 사실 그런 비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, 탐사대의 다른 대원들은 주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 오래 잘 살았다.

- 1 가장 간단하게 말해, 귀납적 결론의 문제는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.
- 2 자연의 행동이 한결같고 규칙적이라면, '관찰된'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사건은 '관찰되지 않은' 과거, 현재, 미래에 일어난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확실한 안내서이다.
- 3 그러나 자연이 한결같다고 믿는 유일한 근거는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'관찰된' 사건이다.
- 4 (아마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, 특히 과거에 대한 주장도 역시 자연의 한결같은 작용에 대한 추정, 예컨대 기억에 의존할 때, 우리는 '현재'에 일어난 관찰된 사건만 인정해야 한다.)
- 5 그러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, 즉 세계의 관찰되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관찰된 사건을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.
- 6 따라서 태양이 내일 '어쩌면' 뜨지 '않을'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은 엄격히 말해 비논리적인 것은 '아닌데', 태양이 내일 떠야 한다는 결론이 과거의 관찰로부터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은 '아니기' 때문이다.

- 1 2001년 6월, Carson Sink 서쪽의 오지를 여행하던 중, 나는 'DeLorme Atlas of Nevada'에 분명히 표시된 비포장도로로 들어섰다.
- 2 갑자기, 역시 지도에 나와 있는 작은 수로 바로 너머에서 내가 가던 길이 그냥 끝나 버렸다.
- 3 믿기지 않아서, 나는 잡초와 덩굴 사이로 북쪽을 응시했지만 도로의 흔적은 없었다.
- 4 그러나 그것이 지도에서는 계속되어 있었다.
- 5 이는 지도 제작자의 제작물에 대한 면책 조항("이 지도책의 정보는 출판 당시 출판사에서 알고 있는 한 정확하지만 변경될 수 있다")이 타당한 이유로 거기에 적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.
- 6 이 점은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이 때때로 의도적인 오류를 집어넣어 둔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지도상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데 사람들이 신중해지게 할 것이다.
- 7 그런데 그러한 오류들은 지도 제작자들이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에 세울 때 그들의 사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'개별적 특징' 또는 '함정'으로 일부 지도에 들어간다.
- 8 이 개별적 특징 중 하나를 넣어 제작되고 판매되는 지도의 가없는 표절자를 불쌍히 여기라.

- 9 그는 존재하지 않거나 오직 다른 한 곳, 즉 그 제작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을 도대체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.

1 수렵 채집인과는 달리, 유목민은 잉여 식량을 축적하며, 이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집단보다 더 많은 구성원을 자신들의 사회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.

2 또한 개인이 가진 가축 무리의 크기에 근거한 두드러진 사회적 불평등도 존재한다.

3 일부 인류학자들은 동물 자산이 불안정한 부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데, 왜냐하면 어떤 목자가 말하듯이, "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, 때로는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지 않기도 하기" 때문이다.

4 전염병이나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재난이 닥치면, 부유한 목자는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.

5 그러나 사회학자 Daniel Bradburd는 이란 남중부의 Komachi 유목민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, 재난이 동물 재산에서의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는 것을 발견했다.

6 Bradburd는 "재난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지만, 각자에게 상당히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일어나지는 않는다."라고 설명한다.

7 가축 무리의 절반을 잃는 가난한 사람은 결국 많은 경우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크기로 줄어들지만, 반면에 가축 무리의 절반을 잃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흔히 큰 어려움 없이 그 무리를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동물이 남게 될 것이다.